

법헌 스님의
만다라&수행

일백팔비금강장왕보살



천수천안관자재보살이 연화부의 과덕을 나타낸 것이라고 한다면, 금강장왕은 금강부의 과덕을 상징한다. 지혜를 완성하고, 일백비에 가지고 있는 각종지물(各種持物)들은 백팔번뇌를 무수히 퇴치함을 나타내는 것이며, 16면은 금강계의 16대보살의 덕을 나타내며, 22면일 때는 6도보살의 덕을 더하게 되며. 금강장왕보살은 금강권보살과 동체가 된다. 왼쪽의 제1수의 현병은 이 병(甁) 안에 만법이 함축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형상 : 청색, 22면 중 최상부에 불두가 있으며, 백팔비에는 각종지물과 수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화대좌에 가부좌를 하고 있다.



보리수아래의
부처님 품안에서
⑳ 정신장애인 A씨

장애인, 바른 이해와 배려 선행돼야

사람들은 정신장애인이란 말에 익숙지 않다. 신체장애가 드러나는 경우에만 장애인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신장애는 장애가 아닌 '병'이라는 한계 안에서 생각하기도 한다. 이는 신장장애나 심장장애와 같은 내부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생각된다.

법정 장애인등록 정보를 찾아보면 정신분열병(조현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등이 정신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올해 4월에는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성장애, 투렛장애, 기면증도 정신장애의 범주에 추가되었다. 정신장애인들도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약물치료 등 치료를 꾸준히 잘 받으면 일상생활을 무리없이 할 수 있다. 다만 바르지 못한 편견이 큰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리수아래 2021 아시아장애인공동시집 〈한국-인도네시아〉편에 정신장애를 가진 인도네시아 시인이 참가를 했다. 그의 시는 자신 때문에 슬픈 어머니에 대한 글과 병원에서의 생활을 그리고 있다. 대학에서 인류학을 전공했지만, 조현병으로 인해 공부를 끝내지 못하고 방황을 하다, 다시 일어나 덴파사르 BISAbilitas 장애인 집과 언론 등을 통해 활동하며 글을 쓰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조현병 커뮤니티를 만들어 발리에서 "조현병 환자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단체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한다.

공동시집 속의 이 시인의 글을 읽고 어떤 한 친구가 반가워하며 만나자고 했다. 그녀의 집이 봉은사 근처로 봉은사 산책을 하고 싶어 하는 그녀를 위해 봉은사에서 만났다. 봉은사를 한 바퀴 돌고 그녀가 자주 간다는 찻집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예전에도 서너 번 만난 적이 있는 그녀는 인도네시아 시인의 시를 읽으며 시인의 마음이 어땠을지 짐작이 갔다고 했다. 어려움 속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정신장애인들도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사람들이 가까이 오기를 꺼리고 자신으로 인해 부모님이 겪는 아픔과 삶의 어려움을 담담히 이야기했다. 그녀와 장애는 다르지만 나도 장애인 당사자이니 그녀의 마음을 어찌 모르겠는가. 나와 같은 뇌성마비 장애인은 겉으로 보이는 외모만으로 인지가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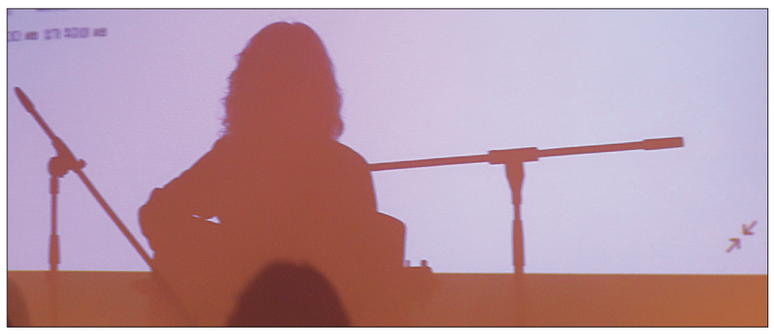
그녀는 요즘 어떤 기관에서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한다. 홈페이지 운영 업무와 사업팀의 일원으로 업무를 한다고 한다. 직장생활 경험이 없는 그녀는 백지 위에 무엇인가를 그림으로 그려가는 기분이라며 일하는 가운데 느낀 보람과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직장에 들어가 처음으로 업무가 주어져서 진행 중이라 했다. 동료와 윗분들이 그녀가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지 사업계획을 잘 세워보라고 하였다고 한다. 사업에 대한 방향과 설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험이 없는 그녀는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진행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졌다.

문득 사회에서 자신의 모든 것에 "장애 때문에"라는 타인의 말로 상처를 많이 받은 그녀가 직장에서도 상처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직장을 다녀본 경험이 있다면 사업자료와 서류를 찾아 참고하고 전 담당자에게 물어서 하겠지만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동료 중 혹자는 일을 어려워하는 그녀에게 "가을이 되면 더 불안정해진다고 들었는데" 식의 걱정을 하며 '장애 때문에 안 될지도'라는 이유까지 붙이는 이가 있겠다는 에상이 되기도 했다. 모든 게 처음인 그녀에게 자세한 일에 대한 정보나 설명은 해주지도 않은 채로 말이다.

일에 대한 걱정이 태산인 그녀에게 직장에서 해마다 해온 사업이라면 사무실에 서류가 있을 것이니 찾아서 참고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아직 진행 중이니 작년 자료를 많이 참고하라고 일러주었다. 그리고 선임 담당에게 업무의 궁금한 점은 주저 말고 물어보라 했다. 누구에게도 사업에 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비장애인 담당자라도 난감했을 것이라는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녀는 편안해진 듯했다. 우리는 흔히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고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한다. 사실 장애인을 위한 사회환경은 많이 좋아졌다. 그러나 더불어 산다는 의미는 장애인들이 더불어 사는 데 장애 때문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이 설치되듯 일상에서 배려하는 마음이 따라가야 하는 것을 잊는 경우가 종종 있다. 평등하고 차별이 없다는 우리가 모든 것을 똑같이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제반 여건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차별없이 살도록, 그리고 능력을 발휘 하도록 그들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배려가 선행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



행사에 참여해 시 낭송하는 장애인 A씨.

불자들이 꼭 읽어야 할 『금강경』
산스끄리뜨 완역으로 만나다!

불광미디어 유튜브 저자 금강경 강의

산스끄리뜨 원전의 생생한 리얼리티와 핵심을 찌르는
한역본의 장점 두 가지를 모두 살린 『금강경』 해설서

불자라면 반드시 읽어야 하는 대승불교의 핵심 경전, 『금강경』! 그러나 산스끄리뜨 원전이 발견되기 전까지, 우리가 접한 것은 한역본 『금강경』 이었다. 인도에서 산스끄리뜨와 빠알리어를 수학하고, 연구 모임을 이끌며 부처님 가르침의 원음을 전하는 데 주력해온 봉선사 범어연구소장 현진 스님의 역작인 이 책은 리얼리티가 살아 있는 산스끄리뜨 원전과 핵심을 찌르는 한역본을 세세하게 비교하여 거의 완벽에 가깝게 옮기고, 풍부한 해설을 덧붙여 그 안에 숨 쉬는 가르침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게 하였다.



산스끄리뜨 원전으로 만나는
원형의 금강경

산스끄리뜨
금강경 역해

वज्रच्छेदिकाप्रज्ञापारमिता

현진 역해 | 480쪽 | 양장 | 2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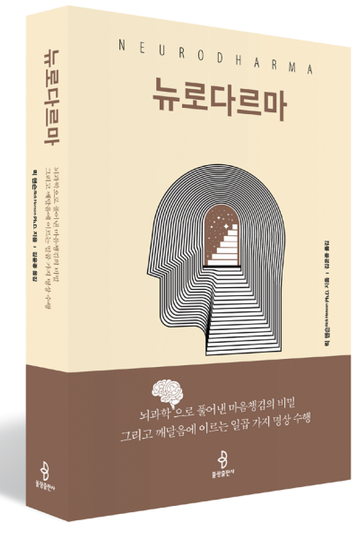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홈페이지 www.bulkwang.co.kr

우주, 바다와 함께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3대 미지의 영역인 뇌를 탐색하던 과학자들이
맞닥트리게 된 것은 바로 명상!

최신간

뇌과학과 명상의 관계에 '획기적인(groundbreaking)' 진전을 이룬 작품이라는 과학계의 찬사를 받았던 〈붓다브레인〉은 대중의 관심도 한 몸에 받으며 그해 단숨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고, 29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 출간되었다. 〈붓다브레인〉의 릭 핸슨이 〈뉴로다르마〉로 돌아왔다.



〈뉴로다르마〉에 보내는 찬사

심장과 마음을 단련하는 지혜로 가득한 아름다운 길
– 잭 콘필드(『마음이 아플 땐 불교심리학』의 저자)

신경과학과 불교적 수행법 및 철학 양쪽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릭 핸슨은 이 매혹적인 작품을 멋지게 창조해 내었다.
이 책은 마음을 단련하여 뇌를 변형시키고,
건강과 번영으로 이끄는 방법을 보여준다.
– 대니얼 J 시겔(UCLA 의과대학 정신과 임상교수)

진정한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가슴으로 이끌 실용적이고,
강력하고, 과학에 기반을 둔 실습 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은 릭 핸슨의 탁월함에서 비롯된다.
– 타라 브랙(『받아들임』의 저자)

뉴로다르마

릭 핸슨(Rick Hanson) 지음 | 김윤종 옮김 | 440쪽 | 20,000원